



1903년경 경운궁 남쪽 궁궐 담장 공사

경운궁 주변에 포진하게 된다. 그리고 경운궁과 궐외각사를 연결하는 운교를 건설함으로써 궁궐로서의 외연을 갖추어간다.

1902년 환구단 정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져서, 경운궁의 대안문을 마주보게 되면서 대안문과 환구단 정문을 잇는 길을 따라 근대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환구단 정문 앞의 대관정이나, 대한문 앞의 팔레호텔 등 2층 높이의 서양식 건물은 그 이전에 대로를 따라 행랑건축으로 형성되었던 한양의 전통 도시경관을 근대적인 도시경관으로 바꾸어놓았다.

한편 조선 후기 창덕궁과 함께 양궐체제를 이루고 있던 경희궁은 1867년 경복궁이 건설되면서 전각들이 해체되었다. 흥화문과 승정전만이 빈 궁터에 남겨져 있는 상태였다. 비워진 경희궁터는 당시 뽕나무를 심고 양잠소를 설치하여, 근대적인 양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경희궁터는 비좁은 경운궁의 궁역을 보완하는 행사장소로 사용되었다. 1899년에 하인리히 친왕의 열병식이 거행되었고, 1907년에는 엄비가 참석했던 여학교의 운동회가 열리기도 하는 등 국가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경운궁과 경희궁은 하나의 영역으로 사용되었다. 1901년에 두 궁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세 개의 홍예로 지지하는 홍교가 건설되었다. 경운궁과 그 주변의 궁궐도시경관은 1904년 1월 경운궁의 대화재로 궁궐이 잿더미로 변하기까지 대한제국의 근대 도시경관을 대표한다.